

개미산시장 어찌하오리까 ?

수요정체속 생산 · 수입증가로 공급과잉 ... 수요증가 가능성 희박

국내 개미산 시장이 수요정체속에 생산 및 수입의 증가로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개미산 수급현황						(단위 : M/T)
구 분		1991	1992	1993	1994	비 고
공 급	생산	7,500	8,000	7,000	8,000	삼성정밀화학
	수입	4,340	3,500	4,000	4,000	중국, BASF
	계	11,840	11,500	11,000	12,000	-
수 요	내수	6,900	8,500	7,500	7,500	-
	수출	450	480	300	4,000	-
	계	7,350	8,980	7,800	11,500	-

(자료:CRI)

피혁과 염색제조에 85%가 사용되는 개미산 (Formic Acid)의 수요는 93년 7000톤이었으며, 94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국내공급은 삼성정밀화학의 1만 1000톤 생산능력과 함께 중국 · 유럽 등에서의 수입이 4000여톤에 이르고 있다.

국내 독점생산기업인 삼성정밀화학은 85년부터 생산 · 판매하고 있는데 내수 7000톤대비 점유율은 65%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점유율 저조는 수요업체인 피혁 · 염색업체가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보이고 있고

일부기업이 인건비와 공해문제 등을 이유로 해외로 이전하는 등 수요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중국산 등 수입품의 범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수입품은 92년 중국산이 유입되면서 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91년 4300톤에서 93년에는 소폭 감소한 3500 톤으로 나타났으나 93년 이후에는 연간 4000여톤이 유입되고 있다.

94년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BASF 1500톤, 중국 1300톤 등 총 28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93년 2700여톤을 공급한데 이어 94년에도 2500여톤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피혁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며 1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정밀화학은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수출량은 92년 480 톤, 93년 300 톤에 머물렀으나 94년에는 4000여톤 정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정밀화학은 1만2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가동률은 70~80%에 머물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가격도 계속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94년말 기준 중국산이 530달러, BASF 제품이 670달러, 삼성정밀화학의 내수 로칼가격이 585달러, 수출가격이 6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개미산 생산은 BASF 10만톤, BP 5만 5000톤, CEMIRA(핀란드) 4만5000 톤, 러시아 4만톤, Celanese 1만5000톤, 일본 700톤 등 총 33만여톤에 달하고 있다.

한편, 개미산은 빙초산과 호환성이 있어 빙초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향후 대체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고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요업체의 전반적인 정체로 향후 신규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요증가는 요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5/1/2>

